

기후재정: 파리 기후협정에서 알아야 할 5 가지

신기후협정의 잠재력

녹색 에너지 분야 수 조 달러 투자 유입, 개도국의 기후변화 영향 준비 지원

2015.12.14 - 파리 기후협정의 목표 중 하나는 저탄소·기후 회복력 있는 발전 경로를 위한 재정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다.

이 재정 목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2 도씨 보다 훨씬 아래로 (이상적으로는 1.5 도씨) 제한하는 것과 함께 공공과 민간부문 재정이 모두 기후변화라는 시급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쓰일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던지고 있다.

재정 공급

파리 기후협정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적응 감축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외 국가로부터의 지원 제공도 장려하여, 개도국도 기후재정을 약속하는 한편 지금까지 재정공약을 한 일부 개도국의 공로도 인정하고 있다.

2020 년 이후 지원 증대

2020 년 이후에는 어떤 기후재정을 늘릴 것인가 하는 점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다. 선진국이 2020 년부터 기후재정을 연 1,000 억 달러 마련한다는 현재의 약속은 계속 유효하다. 이번 협정에서는 이를 2025 년까지 지속하기로 합의했으며, 2025 년 전에 각국은 더 높은 수준의 새로운 공동 목표를 채택하기로 했다.

하지만 언제 신규 목표를 수립할 것인지, 누가 그러한 회의를 주재할 것인지를 밝히지는 않았다. 2020 년에서 2025 년 사이에 기후재정을 얼마만큼의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도 모호하다. 이 문제는 개도국에 중요한데, 기후재정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야 장기적인 전환 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흐름의 예측 가능성과 관련하여, 재정을 종합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현재는 각국의 감축 적응 노력을 점검하고 업데이트 주기는 정해져 있지만, 재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재원이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지원 분야는 무엇인지는 이행점검에 포함될 것이다. 한마디로 재정문제는 이행점검을 위한 근거자료로 쓰이지만, 이에 대한 분석 결과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적응 자원

역사적으로 적응 분야 재정지원은 감축 분야에 비해 미흡했다. 이에 대응하여 국가들은 감축과 적응에 균형있는 공공재원 지원을 목표로 할 것이다. 선진국의 2020 년 1,000 억 달러 마런 목표와 관련해서도 적응 지원 역시 크게 증가할 것이지만,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아니다.

정보제공

이번 협정에서는 재정의 공급과 수령에 대한 보고를 향상하기로 합의했다. 선진국은 제공한 재정에 대하여 2 년마다 사전· 사후 정보제공이 의무화 되었고, 개도국은 제공받은 재원 및 향후 필요 재원에 대한 정보를 제출하기로 합의했다. 개도국의 필요 재원 정보제공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논의는 내년에 시작된다.

※ 출처 = Athena Ballesteros(2015), Climate Home, Climate finance: 5 takeaways from a Paris climate deal, <http://www.climatechangenews.com/2015/12/14/climate-finance-5-takeaways-from-a-paris-climate-deal/>

Athena Ballesteros is director, climate finance at the World Resources Institute